

KIA 올러 복귀...마운드 숨통 트인다

95이닝 소화하며 전반기 8승

팀내 다승 1위 '튼튼한 외인'

오늘 사직구장서 롯데전 선발

이범호 감독 "70개 투구 제한"



KIA 타이거즈의 아담 올러가 8월 키를 쥐고 마운드에 오른다.

올러가 6일 사직구장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부상 복귀전을 치른다. 이범호 감독은 "70구"를 기준으로 해서 올러의 첫 등판을 지켜볼 예정이다.

과정·결과까지 모두 중요한 등판이 될 전망이다. 올러는 지난 6월 25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원정경기를 끝으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이날 경기에서 78개의 공을 던지면서 6이닝 5피안타 1볼넷 5탈삼진 2실점의 승리투수가 됐던 올러는 팔꿈치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엔트리에서 말소됐었다.

KIA는 올러가 로테이션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95이닝을 소화했던 만큼 '휴식' 차원의 말소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회복이 더디면서 올러의 전반기 복귀가 무산됐다.

후반기에도 바로 팀에 합류하지 못하는 등 팔꿈치 염증으로 인해 올러의 공백기가 길어졌다.

확실하게 이닝과 승리를 책임졌던 필승 카드가 사라지면서 KIA는 7월 어려움을 겪었다.

올러는 전반기 16경기에 나와 95이닝을 책임지면서 제임스 네일과 KIA 선발진의 기동 역할을 했다. 12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올러는 8승을 수확해 팀 다승 1위 자리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닝당 출루허용율을 1.05로 묶은 올러는 0.223의 피안타율을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전반기를 보



KIA 타이거즈의 아담 올러가 6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나와 부상 복귀전을 치른다. 올러는 지난 6월 25일 키움전 이후 팔꿈치 염증으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냈다.

올러가 빠지면서 KIA는 마운드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선발진의 이닝은 줄었고, 그만큼 불펜진의 부담은 늘었다. 시즌 초반부터 롤러코스터를 탔던 KIA 불펜진은 올러의 부상 공백과 맞물려 악몽의 7월을 보냈다. 선발 기싸움에서도 밀리면서 KIA는 7연패에 빠지기도 했다.

올러가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KIA의 선발진은 물론 불펜진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그만큼 올러의 첫 경기 내용도 중요하다. 부상 공백이 길어졌던 만큼 올러의 몸상태가 우선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 다른 시즌을 보내고 있는 KIA는 '8월'을 승부처로 보고 있다.

이범호 감독은 롯데를 시작으로 해서 NC-삼성-

두산을 상대하는 원정 12연전을 떠나기에 앞서 "8월에 승부가 나야 한다. 원정도 많이 있고 8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러의 기용에 대해서는 "첫 등판에서는 70구에서 멈추게 할 생각이다. 불펜을 다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부터는 90구까지 던질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올러는 '빠른 적응'이라는 숙제를 안고 오랜만에

마운드에 오른다.

올러는 올 시즌 롯데와 한 차례 만나 6이닝 2실점의 피칭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5월 15일 홈에서 선발 등판을 했던 올러는 3달여 만에 다시 롯데를 만난다. 여기에 첫 사직 마운드는 처음이다.

관중석 열기가 남다른 사직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르는 만큼 올러의 1회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광주FC 드림키스'를 11월까지 진행한다. 사진은 지난 7월 23일 살레시오초에서 강희수(왼쪽)와 박성훈이 참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학교로 찾아간 광주FC...아이들 신났다

축구교실 '드림키스' 본격 운영...선수단·유소년 코치 1대1 강의 등

광주FC의 사회공헌 프로젝트 '광주FC 드림키스'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초등학생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 선수단과 유소년 코치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축구교실'을 진행한다.

지역 내 축구 문화 확대, 사회적 책임 강화, 어린이·가족 단위 팬층 확대 등을 위한 목적으로 해 7월 23일 살레시오초에서 첫 수업이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는 강희수, 박성훈이 참가해 30여 명의 어린이들과 알찬 시간을 보냈다.

24일에는 문민서·홍용준이 양지초를 찾았고, 김동화·김운호는 살레시오초에서 두 번째 수업을 진행했다.

준비운동을 시작으로 패스·슈팅 등 기본기 훈련을 이끈 선수들은 미니 게임, 사인회 및 사진 촬영 등을 하며 어린이들과 호흡을 맞췄다.

수문장 김동화는 골키퍼를 꿈꾸는 참가자의 사

연을 듣고 자발적으로 1대1 강의도 진행했다.

일일 강사로 변신한 김동화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뿌듯하고 감사했다. 즐거운 만남이 경기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광주FC 드림키스'는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광주FC가 공동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11월 말까지 50여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전남 발디비아, K리그2 23R 베스트 11

충남아산FC전 1골 1도움

1골 1도움의 활약으로 전남드래곤즈의 3위 탈환을 이끈 '캡틴' 발디비아(사진)가 베스트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5일 K리그2 2025 23라운드 베스트 11을 발표했다. 발디비아는 박수빈·이정빈(이상 성남), 천지현(김포)과 함께 미드필더 부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발디비아는 지난 2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

린 충남아산FC와의 23라운드 홈경기에서 득점과 도움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2-2 무승부를 이끌었다.

발디비아는 0-1로 뒤진 후반 35분 민준영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동점골을 기록했다.

이후 전남은 후반 40분 코너킥 상황에서 실점을 하면서 1-2로 다시 리드를 내렸지만, 승리는 허용하지 않았다.

후반 추가 시간에 발디비아가 코너킥 키퍼로 나서 공을 올렸고, 골대 앞에 있던 정지용이 머리로



에게 돌아갔다.

김민준은 2일 열린 천안FC와의 원정경기에서 5개의 유효슈팅을 막아내면서 수원의 2-1 승리를 견인했다. 이 경기는 베스트 매치로 선정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골망을 흔들면서 경기는 2-2 무승부로 끝났다.

발디비아의 활약으로 승점 1점을 더한 전남은 부천FC를 따돌리고 3위로 복귀했다.

한편 23라운드 MVP 영예는 수원삼성 골키퍼 김민준

위기의 울산HD, 신태용 감독 선임

13년만에 K리그 복귀

신태용(54·사진) 전 인도네시아 축구대표팀이 좌초 위기에 빠진 '디펜딩 챔피언' 울산HD의 지휘봉을 잡고 위기 탈출의 선봉장으로 나선다.

울산 구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13대 사령탑으로 신태용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성적 부진을 이유로 김관근 감독과 지난 1일 상호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울산은 발 빠르게 신태용 감독을 제13대 사령탑으로 앉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12월 성남 일화(현 성남FC) 감독직에서 물러나 K리그 무대를 떠났던 신태용 감독은 13년 만에 복귀하게 됐다.

신태용 감독은 현역 시절 '그라운드의 여우'라는 별명으로 활약한 미드필더 출신 지도자다.

1992~2004년 성남의 '윙클럽맨'으로 뛰면서 401경기에서 99골 68도움을 작성한 신태용 감독은 6차례나 K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데뷔하던 해에 신인왕을 차지한 신태용 감독은 1996년 18골(24경기)로 득점왕에 오르며 K리그 최우수선수에 두 차례나 선정되는 등 화려한



현역 생활을 자랑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23경기에 나서 3골을 뽑아냈다.

신 감독은 2005년 퀸즐랜드 로어 FC(호주) 코치를 시작으로 2008년 12월 성남의 감독 대행으로 K리그 무대에서 처음 사령

탑을 맡았다.

2012년 성남과 인연을 끝낸 신 감독은 이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코치, 올림픽 대표팀 감독, 20세 이하(U-20) 대표팀 감독 등을 맡으며 지도자로서 성장했다.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 U-23 대표팀과 A대표팀을 이끌었던 신 감독은 지난 1월 경찰청 뒤국내로 돌아왔다.

신 감독은 오는 9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제주SK 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5라운드 홈 경기를 통해 울산 데뷔전을 치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손흥민 미국행 사인만 남았다

LAFC 입단 확정 위해 출국

손흥민이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 FC(LAFC) 입단을 확정 짓기 위해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손흥민은 이미 LAFC와 입단 합의를 마쳤으며 사인과 공식 발표만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 고별전이 된 3일 쿠팡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전후해 손흥민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MLS행을 언론에 전한 가운데 차기 행선지 중 하나로 거론돼온 LAFC에 새 동지를 틀 예정이다.

글로벌 스포츠 전문매체 ESPN은 한국시간 5일 손흥민이 LAFC와 계약을 앞뒀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르면 수요일(현지시간 6일) 공식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손흥민의 출국이 확인되면서 그의 LAFC행은 기정 사실이었다.

손흥민은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며 공식전 454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EPL) 127골, 국내

컵대회 19골, 유럽클럽대항전 27골을 넣고 도움은 포함 101개를 올렸다.

2021~2022시즌 EPL에서 23골을 터뜨리며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지난 5월엔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우승에 기여했다.

지난 시즌 에이징커브를 겪은 손흥민은 이적설이 파다하던 지난 2일 서울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을 통해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하며 토트넘과의 결별 소식을 직접 전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컸다"며 차기 행선지로 내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미국의 MLS 클럽을 암시했고 그동안 이적설이 돌았던 LAFC가 차기 행선지로 굳어졌다.

이어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성대한 토트넘 고별전을 치렀다. /연합뉴스